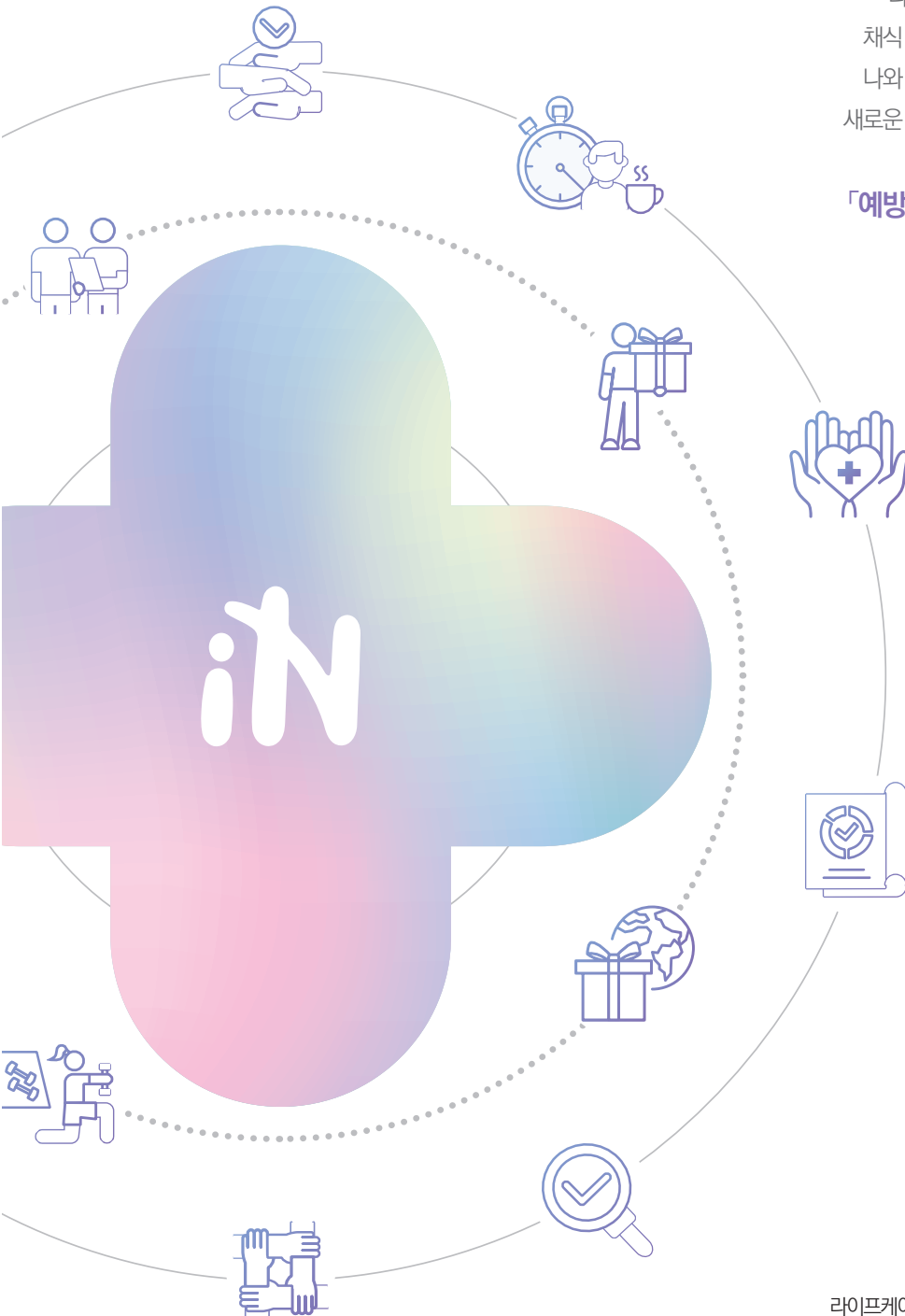


라이프케어 운동

라이프케어 운동은 암을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나와 지구 환경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치료 중심의 사회에서
「예방 중심의 사회」를 만듭니다**



라이프케어 운동 참가하기 ▶



질병을 통해 본 세상

우리는 암과 만성질환이 만연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80%*를 차지하며 이 중 암으로 인한 사망은 26%*에 이르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국내 당뇨병 환자 6백만 명 전망, 30년 앞당겨졌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2020년 기준)을 넘어섰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0년 전인 2012년에 “2050년에는 당뇨병 환자 수가 약 591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의 예측이 30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더구나 ‘당뇨병 전 단계’ 인구(1,583만 명)를 포함하면 국민 2명 중 약 1명(42%)은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야말로 당뇨병 대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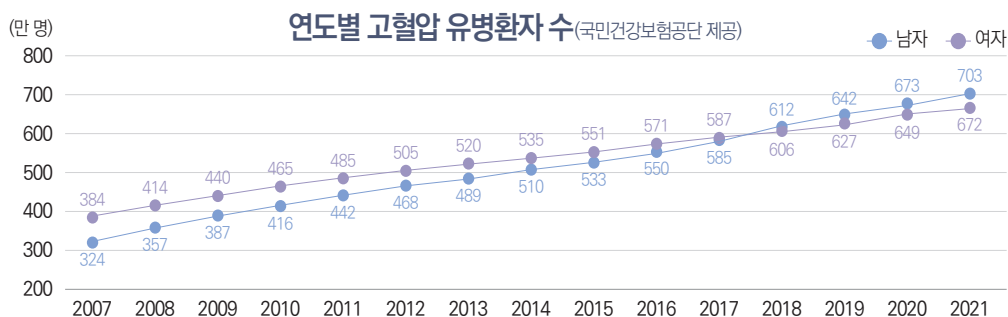
*출처 : 국내 당뇨병 환자 6백만명 전망, 30년 앞당겨졌다, (2022. 09. 06). 「동아일보」

전 세계 성인 ‘11명 중 1명’ 당뇨병 환자… 2045년 ‘7억 명’ 예상

2019년 전 세계 20~79세 당뇨병 환자는 4억 6300만 명(9.3%)이었다. 2017년에 보고한 4억 2,500만 명과 비교하면 3,900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또 2019년 기준 6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1억 3,600만 명으로 고령자 5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출처 : 전 세계 성인 ‘11명 중 1명’ 당뇨병 환자… 2045년 ‘7억 명’ 예상, (2019. 12. 05). 「메디컬업저버」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 지난 14년간 1.94배 증가



*출처 :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지난 14년간 1.94배 증가, (2022. 05. 16). 「뉴스1」

모두의 걱정거리 암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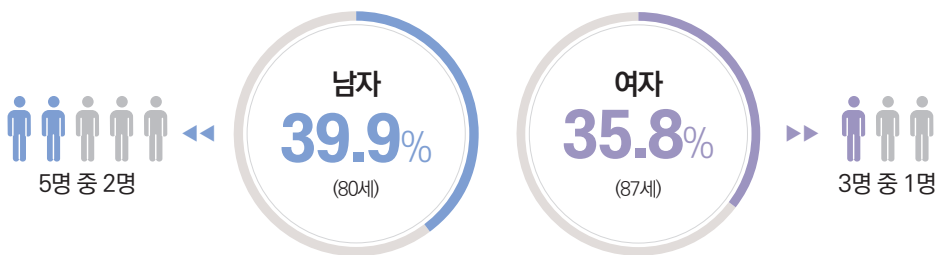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암에 걸릴 거라는 정부의 통계 그리고 암 유병자 215만 명*. 이 정도의 통계 확률이면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해야 합니다.

*출처 :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암유병자 : 암 치료를 받는 암환자 및 암 완치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수치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모든 암 유병자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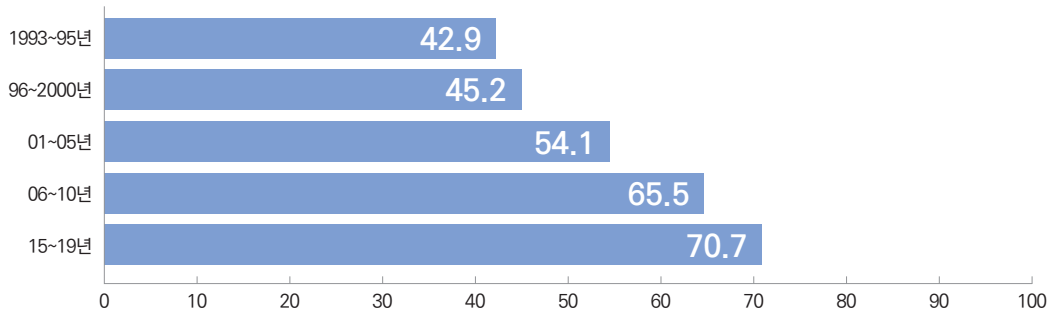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



* 출처 : 국립암센터(2019 국가암등록통계), 2021 발표

* 2019년 남녀 기대 수명(통계청)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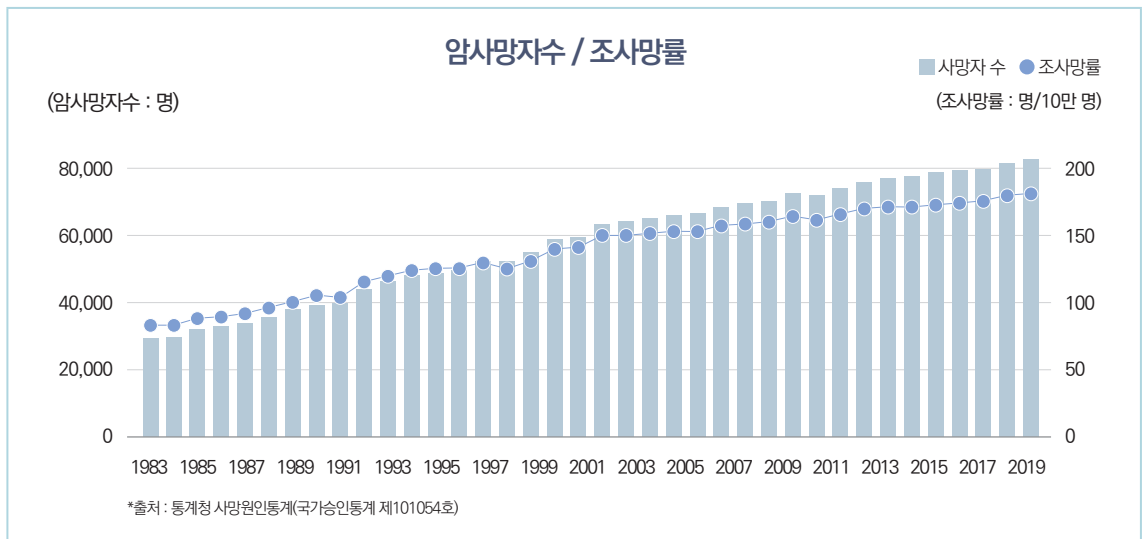
*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5년 상대생존율

* 단위 : %

그런데 사람들은 암보다 코로나19를 더 걱정합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70%는 암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치이자 암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암의 실상

그런데 암의 실상은 다릅니다. 새로 암을 진단받는 사람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2019년 기준 암 유병자는 무려 21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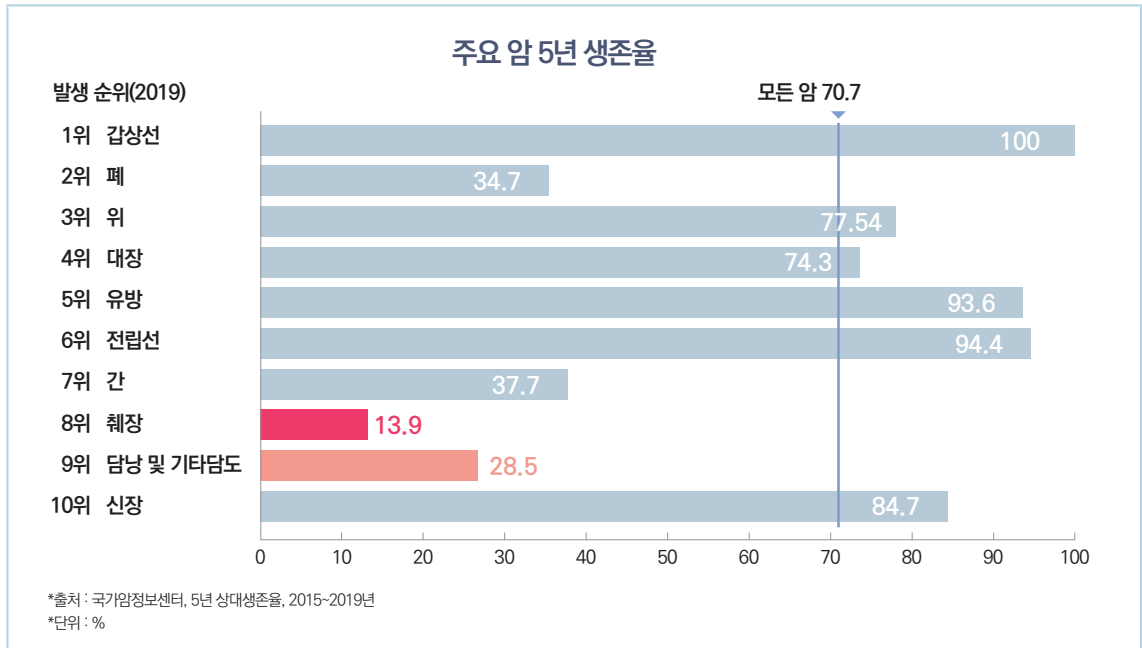
2019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대에서 50대까지 젊은 사람의 암 사망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분	코로나(2020-2022) 사망자 수	암(2019-2020) 사망자 수
20대	45	558
30대	88	1,837
40대	245	6,703
50대	753	19,837
소계	1,131	28,935
60대	2,201	34,440
70대	4,334	48,778
80세 이상	10,696	50,893
소계	17,231	134,111
합계	18,362	163,046

*암 사망자 수 : 통계청 / 코로나 사망자 수 : 중앙방역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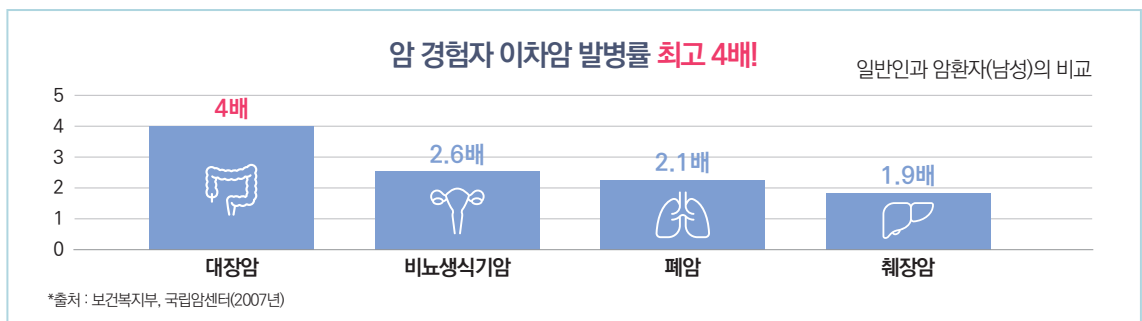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70%는 착시효과

5년 생존율을 자세히 보면 갑상선, 전립선 등 비교적 가벼운 암에 대한 통계 표시로 암을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암 5년 생존율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암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암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2차암에 걸리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암 진단 시 고령이거나,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흡연, 비만, 당뇨와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암생존자일수록 2차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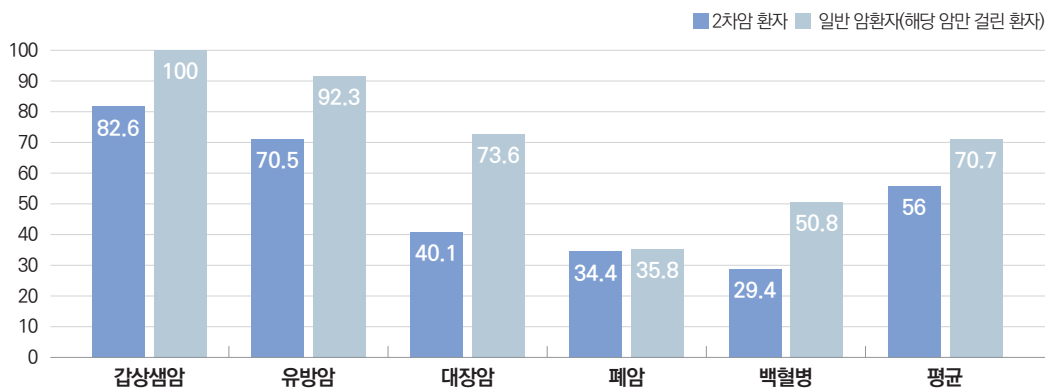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암정책팀 보도자료(2007.10.24.)



생존율이 뚝 떨어지는 2차암

2차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원격 전이된 암 환자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암은 한 번 걸렸다가 재발이 되면 치명적입니다. 암 환자, 사망자 증가 가속화, 재발의 위험.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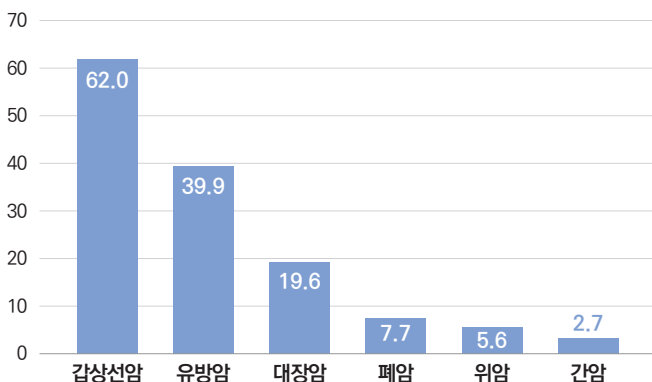
일반 암환자에 비해 5년 생존율 낮은 2차암 환자



*출처 : 생존율 낮다는 난소암 겨우 이겨냈더니 백혈병·유방암이... (2018.08.31.) 「중앙일보」

*단위 : %

주요 암종 원격 전이 암환자 5년 생존율



*출처 : 국가암등록통계, 주요 암종 요약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 남녀전체, 2017년

*단위 : %

원격전이암 5년 상대생존율

	국내 평균	삼성암병원
전체암종	20.9%	43.2%
전립선암	44.2	78.2
유방암	38.3	62.3
대장암	19.6	48.2
신장암	13.4	42.5
폐암	6.1	34.7
췌장암	2.0	26.0
위암	6.3	16.1
간암	2.8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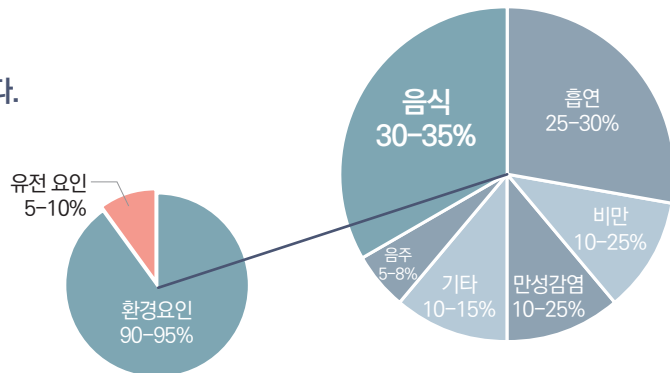
*출처 : 삼성서울병원, 2011~2015년

암은 예방이 가능하고 예방이 최선

암의 원인의 대부분은 먹는 행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환경요인 90~95% 중에서 음식(30~35%), 비만(10~25%), 음주(5~8%)를 합하면 45~68%에 이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식생활을 변화시킴으로써 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 사망의 30%는 흡연에 의해
30%는 식이요인에 의해
10~25%는 만성감염에 기인한다.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한번 암에 걸렸던 사람에게 다시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 일도 '예방'입니다.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 세계 암환자의 40%, 예방 가능해

전 세계에서 매년 암으로 진단받는 천 2백만 명의 40%는 생활습관을 바꾸거나 감염을 예방하는 경우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 암 예방 협회(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에 의해 발표됐다.

*출처: "전세계 암 환자의 40%, 예방 가능해", (2010. 02. 03). 「메디칼타임즈」

'Cancer as a Metabolic Disease' By. DR. Seyfried

"만성염증이나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주는 위험요소를 피하는 것만으로, 적어도 모든 암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비만, 흡연, 음주, 발암물질, 방사능 등이다. 원칙적으로는 암보다 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은 없다.

*출처: 'Cancer as a Metabolic Disease', (2010. 01. 27). 「Nutrition & Metabolism」

암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 운동

라이프케어 암 예방 활동은 정부의 당뇨·암 예방 수칙을 반영하여 예방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 (질병관리청)

- ✓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 ✓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 늘리기
- ✓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 식사하기
- ✓ 좋은 생활습관 기르기
- ✓ 정기적인 검진 통해 위험 인자 확인하기

국민암예방수칙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 암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라이프케어 활동은 현대 의료 체계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하는 것입니다. 현대 의료 체계에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세 가지 케어(care) 요소인 ① 예방, ② 재발 방지, ③ 말기암 케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방	정부의 암 예방 캠페인은 우리 라이프케어 활동의 확산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라이프케어 활동이 이들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암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말기암 환자 케어	호스피스 병원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명이 1년 정도 남은 경우라면, 이전의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생존 연장과는 다른 ‘활력 있는 삶’, 이전의 외로운 ‘투병’이 아닌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보다 ‘건강한 삶’을 알차게 채우고 이어 나갈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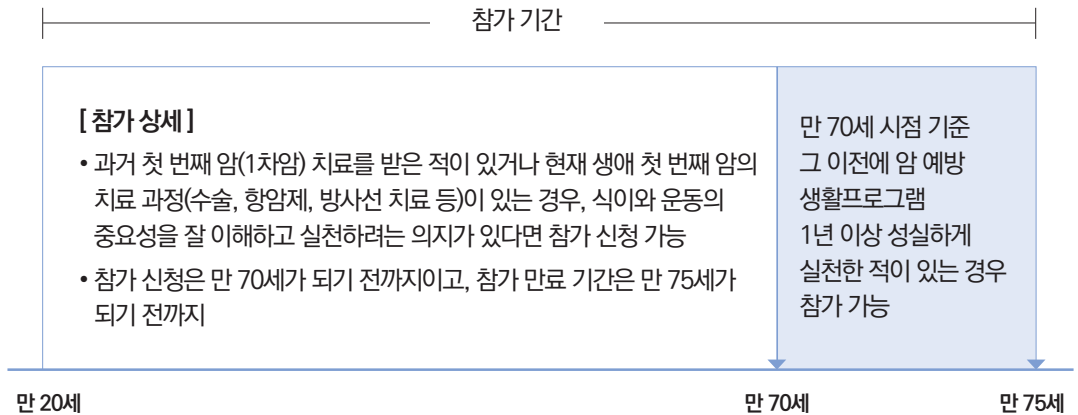
01 라이프케어 운동이란?

암을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나와 지구 환경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새로운 생활 문화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치료 중심의 사회에서 '예방 중심의 사회'를 만듭니다.

02 참가대상

우리 조합에 조합비를 전액 납부한 본인과 그 가족이 '파트너(동행) 적격'을 갖춘다면, 상조회에 라이프케어 활동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에 한정함, 양가 부모님은 별도



※ 참가 신청자는 모두 건강검진과 면담을 해야 하며, 상조회는 그 결과 신청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암 등의 중대 질병이 확인되거나 세포독성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등의 영향으로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어려운 심신상태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프케어 상호부조 활동규정을 확인해주세요.

▶ 파트너(동행)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파트너(동행)은 연령대에 따라 구분되며, 상호부조 활동 및 혜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블루 파트너	만 55세 되기 전
레드 파트너	만 55세 이상 65세 되기 전
화이트 파트너	만 65세 이후

03 무엇을 하나요?

1)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파트너(동행)가 항암식품과 암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식품을 적극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과 디톡스를 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파트너(동행)의 특성에 맞춰 제안·진행됩니다. 식이와 운동, 건강검진과 연계한 의료적 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힐러는 온 마음을 다해 파트너(동행)를 돕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오랜 기간 굳어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라이프케어 힐러는 채식 70% 이상의 좋은 먹거리 식단과 시간제한 식사(간헐적 단식), 운동,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파트너(동행)에게 안내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파트너(동행)의 생활습관을 바꾸고 건강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생활 전반을 케어하고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합니다.



※ 상조회는 힐러 등을 통해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 중 비의료 부분의 실천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파트너(동행)에게 제공하고 안내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교육·지침에 따라 정부가 공표한 5대 '당뇨 예방 수칙'과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의 취지에 근거하여 항암식품과 암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식단을 파트너(동행)에 맞게 추천해 드리며, 시간제한 식사(간헐적 단식), 운동, 스트레스 해소법 등의 실천을 안내, 점검하고 돕습니다.

04 예방하지 못해서 암에 걸리면?

파트너(동행)가 만 2년 이상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 발병 시 암 예방책임을 집니다.

만 55세 되기 전 생애 첫 번째 암 진단

- 외과수술회복지원금 최대 500만 원 이내
- 집중치료지원금 최대 6개월 지원
- 생활지원금 월 30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예방책임 적용기간 동안 선수금 면제 최대 5년
- 암 예방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을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시 위로금 1억원



만 55세 이후~ 만 65세 되기 전 생애 첫 번째 암 진단

- 외과수술회복지원금 최대 500만 원 이내
- 집중치료지원금 최대 3개월 지원
- 생활지원금 월 30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암 예방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암을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시 위로금 5천만 원



만 65세 되기 전 생애 두 번째 암 발병 시

- 집중치료지원금 최대 3개월 지원
- 생활지원금 월 30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암 예방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암을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시 위로금 5천만 원



만 65세 이후 ~ 만 75세 되기 전 생애 첫 번째 암 진단, 생애 두 번째 암 발병 시

- 집중치료지원금 최대 3개월 지원
- 생활지원금 월 20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암 예방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암을 직접원인으로 한 사망시 위로금 3천만 원



※ 최초 활동개시일 이후 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발병하는 암의 경우는 참가 이전에 이미 질병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상조화는 일체의 예방책임을 지지 않고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암 예방책임에 관한 상세 내용은 라이프케어 상호부조 활동규정을 확인해주세요.**

05 선수금은 무엇인가요?

1) 선수금으로 예방책임은 기본, 일반 보험과 달리 납부금액 대비 100% 이용(환급)됩니다.

기존 보험(공제)	라이프케어 활동
• 암에 걸리면 목돈 제공 • 치료는 개인의 몫	• 암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케어 •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 성실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릴 시 예방책임(치료 및 지원금)보장

2) 연령대별 선수금은 이렇습니다.

(단위: 만원)

구분	20대	30세 ~34세	35세 ~39세	40세 ~44세	45세 ~49세	50세 ~54세	55세 ~59세	60세 ~64세	65세 ~74세
가. 생활실천 선수금	9	13.5	16.2	18	22.5	27	31.5	36	45
나. 상호부조 회비 (공동치유회비)	1	1.5	1.8	2	2.5	3	3.5	4	5
선수금 합산액	10	15	18	20	25	30	35	40	50

3) 선수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40대 초반 파트너(동행)의 선수금 사용 예시이며, 연령대별 선수금 사용액은 상이합니다.

년 240만 원(40대 초반)

	상호부조 회비(공동치유회비)	24만 원
+	생활실천 선수금(케어비용, 건강검진, 암 예방 집중 프로그램, 항암식품 등)	216만 원
+	힐링&쿨링인센티브	10만~300만 원
+	예방책임	

4) 선수금 세부 항목은 이렇습니다.

	상호부조 회비(공동치유회비) 라이프케어 활동 상호부조 자원 마련을 위해 파트너 (동행)가 함께 모으는 기금
	예방책임 공동치유회비로 암 수술비, 집중 치료비, 집중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 사망위로금 등 사용

생활실천 선수금	
항암식품	항암식품과 암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식품 제공
건강검진	만 65세 되기 전(블루 또는 레드 파트너) 매 2년 1회 이상, 만 65세 이후(화이트 파트너) 매 3년 1회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종합건강검진 수검기간을 매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 가능
암 예방/재발 방지 집중프로그램	암 발생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교육 진행 (암 예방 년 1회/암 재발 방지 년 2회)
케어비용	파트너(동행) 케어를 위한 힐러 운영,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등에 사용
치유여행	만 55세 이후의 파트너(동행)에게 매년 일정 기간의 국내외 치유여행 기회 제공

※ 그밖에 파트너(동행)를 위한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5) 성실하게 실천 시 힐링&쿨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힐링 인센티브 채식 70% 이상 식사, 간헐적 단식, 운동 등 암 예방&재발 방지 생활프로그램 5대 생활 실천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실천할 경우 '힐링 인센티브' 제공
	쿨링 인센티브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으로 채식 중심 식사,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안하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 장치 사용하기, 전기·수소 자동차 타기 등이 있으며, 지구의 쿨링을 성실하게 실천할 경우 '쿨링 인센티브' 제공

06 파트너(동행)의 실천 제안은?

▶ 건강한 라이프케어를 위한 생활실천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주세요.

파트너(동행)는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을 포함한 라이프케어 활동의 각종 생활 실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암 예방&재발 방지 생활프로그램’ 5대 생활 실천 가이드라인

구분	30대까지	40대	50대	60대부터
채식	전체 식사량 중 채소 + 과일 70% 이상 섭취			
간헐적단식	하루 12시간	하루 14시간	하루 16시간	하루 16시간 +주 1회 하루 단식
운동	하루 1시간 이상, 주 7시간 이상		주 10시간 이상	주 14시간 이상
	강한 운동과 가벼운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인터벌 운동			
혈행개선& 장건강 디톡스	자가 및 협력기관 이용			

※ 혈행개선·장건강 디톡스는 파트너의 개별적 건강상태를 전제로 내린 의료인의 진단과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됩니다.

파트너(동행)의 실천 의무 이행 여부 판단이 의료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체수분 및 유산소 활동능력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위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수분 및 유산소활동능력은 수시로 쉽게 검사할 수 있고, 몸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체수분 및 유산소활동능력 평가 기준

1. 최초 활동개시일로부터 만 1년 이내 65세 이하는 체수분율을 50% 이상, 65세 초과는 48% 이상 높이고 유지
2. 최초 활동개시일로부터 만 2년 이내 65세 이하는 체수분율을 55% 이상, 65세 초과는 53% 이상 높이고 유지
3. 최초 활동개시일로부터 만 3년 이내 65세 이하는 체수분율을 60% 이상, 65세 초과는 55% 이상 높이고 유지
4. 최초 활동개시일의 파트너(동행)의 체수분율이 50% 이상이면 그다음 해는
- 65세 이하는 55% 이상, 65세 초과는 53% 이상 높이고 유지
5. 최초 활동개시일의 파트너(동행)의 체수분율이 55% 이상이면 그다음 해는
- 65세 이하는 60% 이상, 65세 초과는 55% 이상 높이고 유지
6. 유산소활동능력이 약한 파트너(동행)라도 최초 활동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층 건물의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07 참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참가신청	02 힐러 면담 및 혜택 안내	03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 시작	04 지속적인 라이프케어 활동
• 참가 신청서 작성(온라인) - 신청서 1부, 참가전 알릴의무 1부, 자필 서명의 활동규정 동의서 2부 제출 • 최초 선수금 납부 • 힐러&힐러매니저 배정	• 라이프케어 상담팀의 혜택 안내 • 담당 힐러와 면담 • 상조회의 참가 승낙 - 참가 승낙은 신청서류가 접수되고, 최초선수금 등이 전액 납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 활동 개시	• 최초 종합검진 및 건강지표 표출 - 검진은 3~6개월 이내 진행 권고 (파트너별 진행 날짜 상이함) • 최초 체수분율 등 건강지표 관리 • 암 예방 생활프로그램 개시 • 항암&힐링식품 제공	• 암 예방(년 1회)/재발 방지(년 2회) 집중프로그램 의무 참가 • 커뮤니티(그룹)활동 참여 • 참가 갱신(2년 단위)

오랜 기간 연구하고, 치유프로그램 임상경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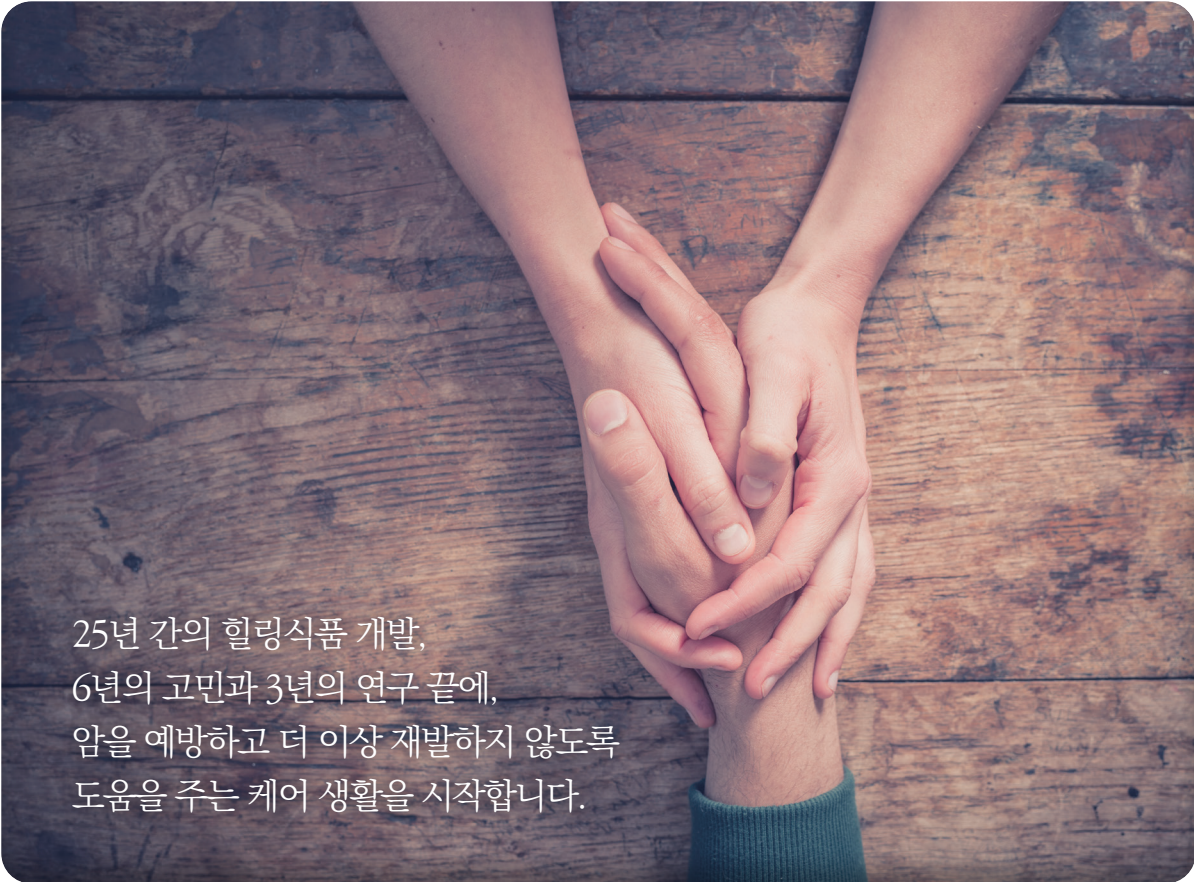
(재)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

(재)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은 '기능 의학, 한의, 적절한 복약 (단기복용)의 치료와 함께 식단, 운동, 수면 등 좋은 생활습관으로 질병의 원인부터 치료하여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평생 만들어 가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모여 설립하였습니다.



탄소치유농업연구소

탄소치유농업연구소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파이토케미컬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농업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자연드림 항암식품 채소·과일은 일반 채소·과일보다 미네랄과 파이토케미컬 함량을 높여 암을 이겨내는 식품입니다.



25년 간의 힐링식품 개발,
6년의 고민과 3년의 연구 끝에,
암을 예방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케어 생활을 시작합니다.

라이프케어 운동의 목표

- 2차(재발) 암 발생률을 **사회적 평균치의 90% 감소**시키는 것
- 암이 다시 발생한 사람의 **사망률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
- 라이프케어 운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여 **한국인의 암 발병 가능성 4% 이하, 신규 암 환자를 3만 명 이하로 낮추는 것**

iN 라이프케어

상담 대표 전화
1577-6009 (4번)

iN 자연드림수상

- 2021 소비자가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 대상_조선일보 주최
- 2022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대상_중앙일보 주최
- 2022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_(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 주최
- 2022 국회 보건복지위 표창_암 예방 친환경유기농식품 부문